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08·5·1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6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불러 주님의 현존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해야 할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은 종작없이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고독과 권태,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끝없이 밀려오는 사념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에 고요함을 주십시오.

주님, 구원받은 기쁨을 한껏 누리며 살기 원하지만 일상의 덫은 늘 우리의 자유로운 비상을 가로막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늘 당당하셨던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기심을 버렸기에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시94:18-19 …… 인도자

♠ 교 독 문 …… 4. 시편 8편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하진솔 선생 Ⅱ. 한상익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278. 사랑하는 주님 앞에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눅12:22-34 …… 인도자
Ⅱ. 요17:20-23 박혜경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씀 …… **Ⅰ. 주 마음 두신 곳** …… 김재흥 목사
Ⅱ. 무지개 백성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42.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인생은 어둠입니다. 사람들 발 앞에 있는 걸림돌은 치워주고, 지친 이들의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 떠나보냅니다. '서로 지체'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과 돌봄과 나눔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주님의 마음과 하나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족자카르타 구호활동 보고	성서의 평화(25)/김기석 목사
개척자들/송강호 형제	기도 : 윤미경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민주 선생님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김인걸 권사

5월							
	영접위원	구성실	이인웅	오진훈	노순옥	문인옥	이건화
	헌금위원	윤석철	김정길	김용길	최숙화	강순배	문인옥

▣ 믿/음/으/로/읽/는/글/

젊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새벽의 신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탄생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순간 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는 죽음의 씨앗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늙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젊은 성숙이요 충만이십니다.
그분은 끝없는 대낮이요 계속되는 젊음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젊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젊음에 대한 은밀한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늙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생의 황혼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고통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이에 대한 노인의 기묘한 이끌림이 있으며
감미롭고 쓴 향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음은 환상으로 충만된 것이며
헌신, 상상, 희망, 아름다움으로 성숙된 것입니다.
생명을 선사하는 일은 노인에게보다는 젊은이에게 더 쉬운 일입니다.
영웅적이 되는 것, 한 이념을 위하여 자신을 불사르는 것은
젊은이에게 더 쉬운 일입니다.
젊은이 안에서 사랑은 자기의 순결한 힘을 다하여
여전히 정열을 발산합니다.
젊음의 시기는 통과시기, 견습시기, 수련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에 의미를 주는 숭고한 순간, 위대한 결단의 시간,
자발성의 절정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돌이킬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젊은이의 신선함, 환상, 영웅심, 자발성,
활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이
성숙되고 생명력이 있으며 풍요롭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습니다.

이 때문에 나의 젊은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십니다.
젊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젊음의 보다 나은 가치를 잃어버림으로써
자기들의 참담한 패배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서글픈 위안으로 삼으려 하며
그 위안을 상책이라고 자위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당연히 싱싱한 젊음, 결코 시들지 않는 젊음,
신적인 젊을 지니시므로 어려운 분이십니다.
또한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느끼고, 자기들의 흐려진 눈초리로써
세상과 그분의 사물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망상일지도 모르는 것을 경험이라 부르고
간혹 싫증난 것을 현명이라 부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 생명의
마지막 섬광에 집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항상 젊으시고
인간이 자기 영혼 안에서 늙어갈 때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계속 젊은 분으로 계십니다.
이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역사의 매순간
항상 젊음을 지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더욱더 가까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기 때문에
사물들이 숨기고 있는 선을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감지하기 힘든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젊으시며 세상을 항상 젊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젊으신 하나님은 결정적 승리는 생명의 것임을 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젊은이들의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며
노인의 악습도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자질을 지니시지만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젊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젊음, 더 나은 표현을 써서 말한다면
영원히 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젊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부활시킴으로써
온 세기의 영원한 젊음을 시작하실 분입니다.

--후안 아리아스,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편지

천상병

점심을 얻어먹고 배부른 내가
배고팠던 나에게 편지를 쓴다.

옛날에도 더러 있었던 일,
그다지 섭섭하진 않겠지?

때론 호사로운 적도 없지 않았다.
그걸 잊지 말아 주기 바란다.

내일을 믿다가
이십 년!

배부른 내가
그걸 잊을까 걱정이 되어서

나는
자네한테 편지를 쓴다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박병규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강인식 김정숙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옥겸 김시영 백묘현 박창운 허정윤 신윤정
윤미경 윤수진 이선림 이정규 이인섭 이인웅 이한림 김명희 임고운
전영웅 김순복 한선희 김재흥 최희영 김민주 권미숙 김지호 김준우
우순덕 양재성 임미심

월정헌금:
권 순 윤정화 김명순 김성자 김정섭 김종철 고영애 박옥순 송의섭
송임회 유증희 이재문 윤주원 최윤선 이재구 황선희 이정은 이희균
김영한 이성범 정두리 조항범 오현정 이은자 하정석 이명희 김 극

감사헌금:
김준우 양재성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김성한 조영순 전영규 김경수
윤석철 장혜숙 문금석 김미순 고재중 김정숙 김필순 이동천 이인웅
정진경 김윤수 왕성환 강순배 배근수 김금순 김성경 김용진 박효선
배부례 이봉배 정복순 이인섭 김순복 무명4

생일감사헌금: 권 순 고영애 김재광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장영숙 김춘려 윤수진 권미숙 황원순 최종원 정원석
김재광 황자순 박규석 박경선 김중수 이순정 황경순 허경기 류준모
김용길 최영혜 조순덕 임창선 하현철 박어진 이정규 박준희 이기분
(누계 : 64,21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차 혜 심	교 회	오 송 경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춘 희	정 복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박 경 선
갈 릴 리	안 정 숙	박 애 순	박 애 순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송 의 섭	김 춘 려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희 우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교 회	최 숙 화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김 금 순	강 순 배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최 종 원	권 미 숙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안 홍 숙	임 수 현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정 옥 영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교 회	박 옥 식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야 외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개척자들의 송강호 형제께서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 구호 활동에 대해서 보고해주십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 **선교보고 :** 16일(수) 저녁 집회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한 장로님 조영순 권사님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4. **퇴직 :**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교회 관리를 맡아 수고하신 노용래 집사님과 차혜심 권사님이 퇴직하시고 고향인 강화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5. **웨슬리 회심 :** 다음 주일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1738년 5월 24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감리교회의 본바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5월 13일은 맨발로 흙을 밟는 날입니다. 꼭 오늘이 아니라도 이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에 맨발로 흙을 밟으며 생명의 기운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토요봉사(19일) : 김문주 김수진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백혜숙 (생일), 장영숙 (생일), 임창선 (생일), 김용길 최영혜 (아름다운 달이어서), 문금석 (시아버님 기일)

< 새교우 소개>
2721 박어진 소속: 청년회
2722 강지은 소속: 청년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